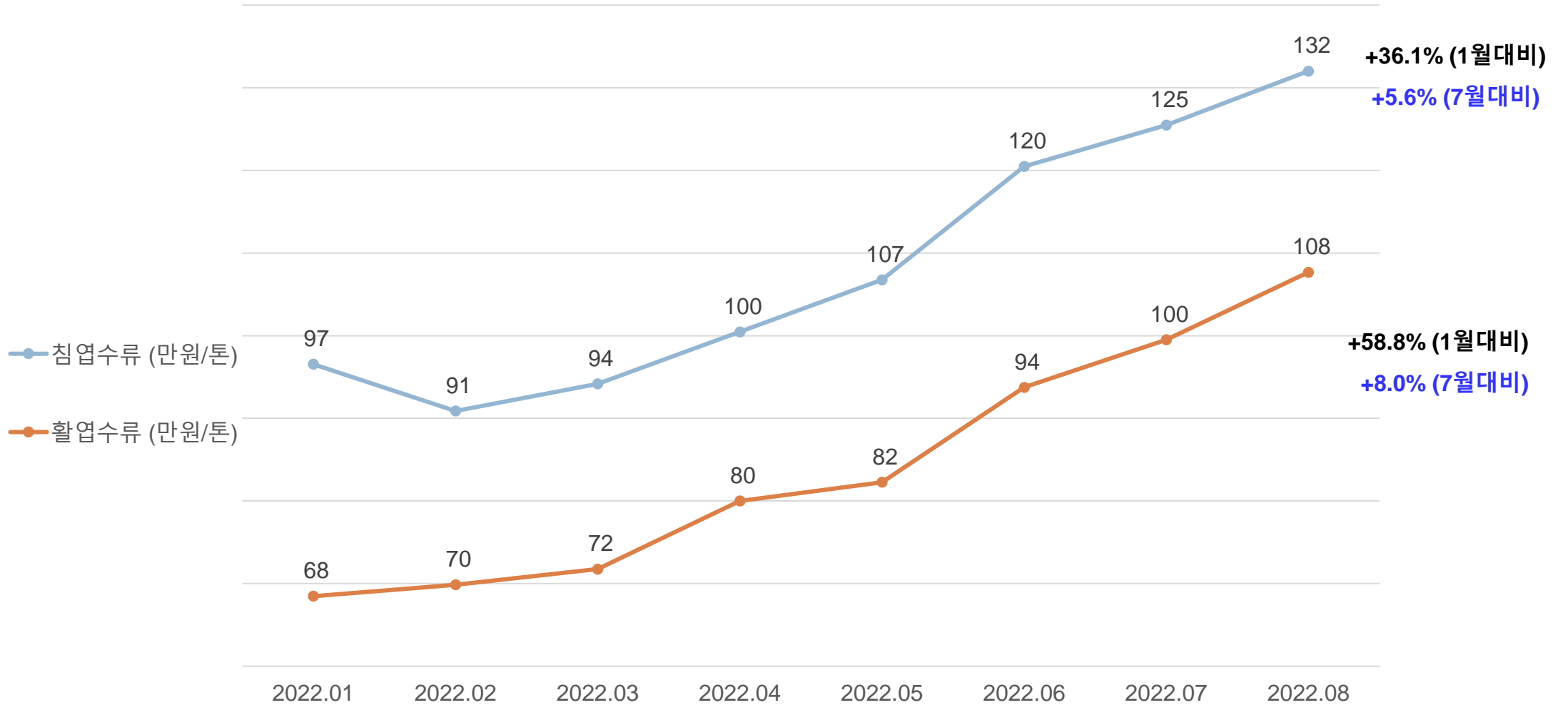


12월 1일 가격 조정 배경

프로페셔널 마케팅
2022.10.26

천연펄프 가격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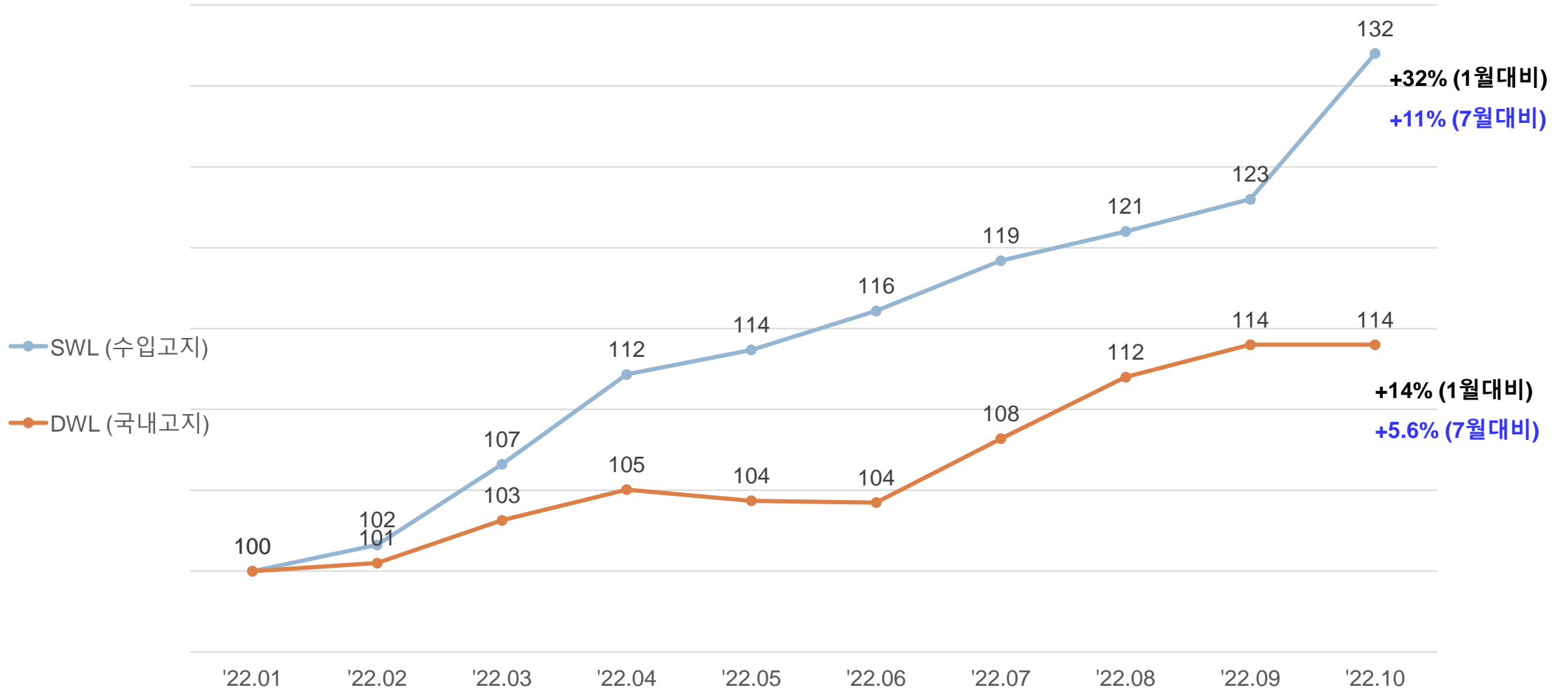
펄프 수입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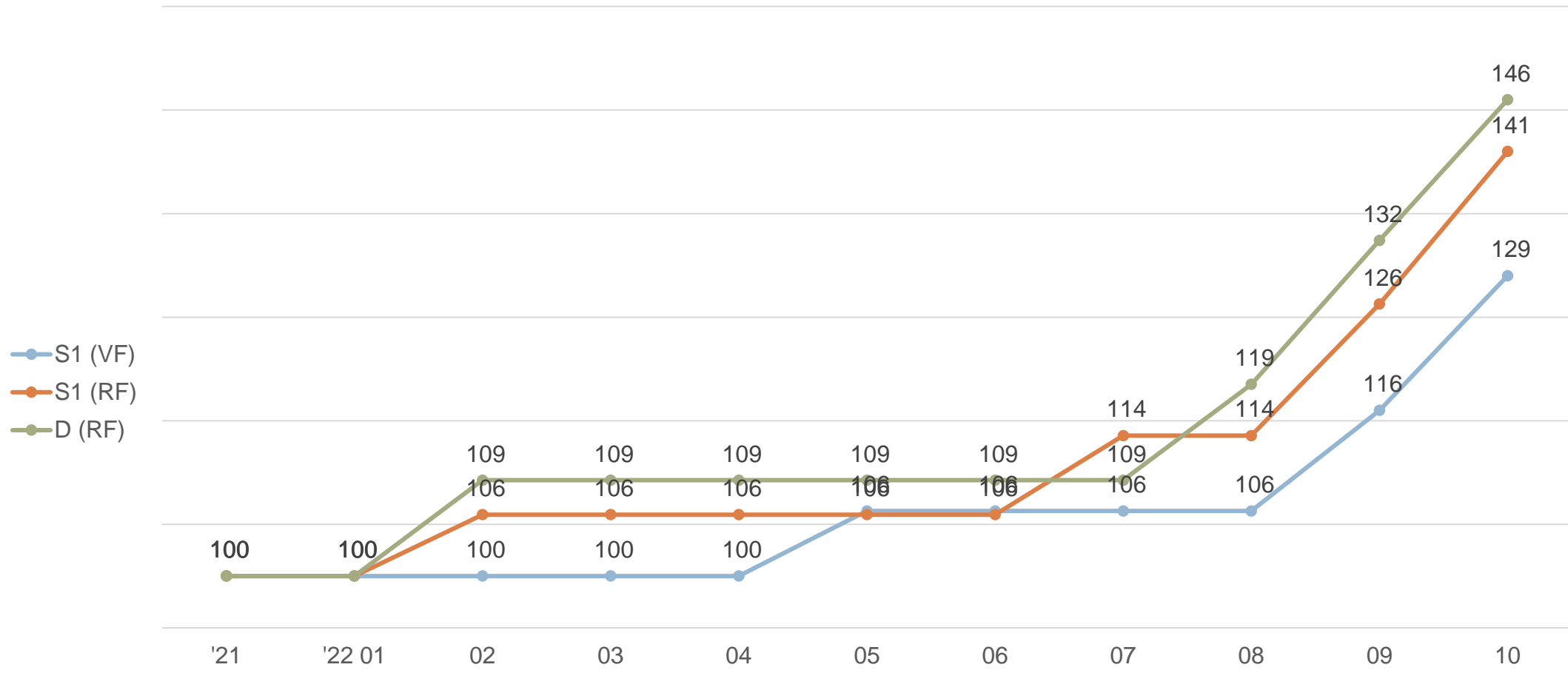
출처: 「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한국환경공단, 원자재 수입동향 종합 에서는 US\$/톤으로 조사되었으나, '기획재정부 (통화별 환율 조사통계)'의 기준원달러 환율로 변환함

고지 가격 폭등

고지 구매 가격 (Index)



원단 가격 동향



22년 1월 가격 (Index=100)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신음하는 기업들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2022.10.10 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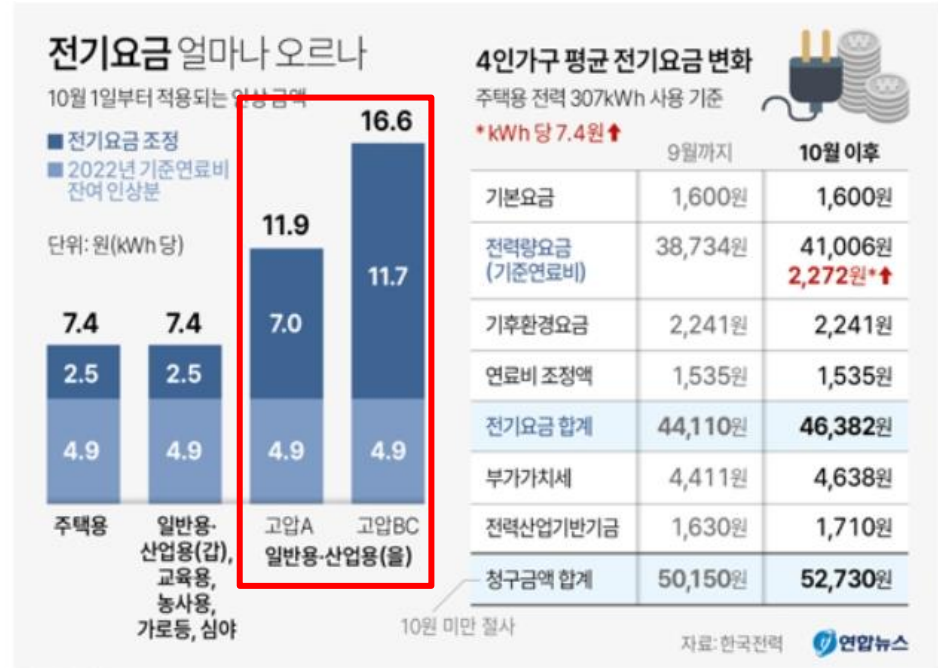
산업용 전기요금도 kWh당 2.5원 인상분을 포함해 kWh당 11.9~16.6원까지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는 기업의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사용했던 산업계가 요금 현실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력 다소비 중기 업종 위기 “전력량 줄이면 생산성 저하”

예고됐던 전기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인상이다.**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은 이미 지난 6월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당 5원 올린 상태다.



김영은기자 20220930

내일(1일)부터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예고보다 인상폭 ↑

KBS NEWS

입력 2022.09.30 (21:01) | 수정 2022.10.01 (07:44)

뉴스 9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가스요금도 다음 달부터 추가 인상됩니다.

기존 예고됐던 메가줄당 0.4원보다 더 많은 메가줄당 총 2.7원 인상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폭 확대는 액화천연가스 LNG와 석탄 등 원료의 수입단가 폭등이 원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최근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LNG와 석탄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물가 민생여건을 반영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LNG 요금)

2배 오른 LNG 수입 가격...최악의 '에너지 한파'에 국내도 비상

아시아경제

f t [최종수정 2022.09.25 13:36] 기사입력 2022.09.25 13:36

뉴스듣기 > [인쇄] [다운로드] [RSS] [가] [가]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오기도 전에 유럽발 에너지 한파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급기야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무기한 차단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NG 수입 가격은 1년 새 2.2배 뛰었다. 지난해 8월 t당 535달러였던 LNG 수입 가격은 올해 8월 1194.6달러까지 올랐다. 역대 최고치다.

하반기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 제재에 맞서 지난 6월 천연가스 공급량을 40%로 감축했고, 7월 20%로 줄인 뒤 이달 들어선 완전히 중단했다. EU에 따르면 유럽은 러-우 전쟁 이전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서방 제재에 맞선 러시아의 초강수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이후 300% 급등했다.

LNG 가격 상승은 국내 가스요금 상승을 일으켜 제조업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달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물가 상승률은 18%대였는데,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5.7%)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러-우 전쟁이 촉발
수입 원자재 비중 큰 韓석유화학업종 타격
1년 새 생산비용 각각 28%, 10% 증가
러시아, 이달 초 유럽행 가스공급 무기한 폐쇄
하반기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확대 전망